



6월의 기도

-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기도 한 6월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저 푸른 나무들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푸르게 자라나게 하시며, 뜨거운 햇볕과 같은 삶의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가에서 심을 얻으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공급하시는 성령의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이 속히 멈추시고 세계에 평화가 공존하게 하시며, 경제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 저희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각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저희 모두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불신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늘날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때를 살펴볼까요?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서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만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 보는 DCEM 2007년 해외성회 <2007 DCEM 교회성장세미나>



2007년 11월 20일 일본 오사카 중앙공회당에서 일본 일천만 구령과 교회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던 '제3회 DCEM 교회성장세미나'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조용기 목사의 목회와 교회성장 비결을 배우고자 일본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본풀가스펠교단으 비롯해 NRA(일본리바이벌동맹), KMA(재일한국인선교사연합회), 재일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 개최된 '제3회 DCEM 교회성장세미나'는 목회자와 신학생, 한인 선교사 등 총 1백여 교회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제3회 DCEM 교회성장세미나'는 조용기 목사의 성령 운동과 기도운동을 통해 일본 교회에 새로운 구령의 불을 지피고자 개최된 세



미나로 2006년 6월 6일 야마토갈보리채플과 2006년 9월 19일 동경 '일본청년관대홀'에서 개최된 후 3번째회였다.

오전 10시부터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된 동 세미나는 일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세미나를 준비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 교회의 부흥 주역들을 통해서 일본의 7천~8천여 개의 교회를 하나로 응집해 부흥의 불을 지피기 위해”이며 또한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교회성장세미나는 오전, 오후 총 2부로 나눠 실시됐다. 1부 세미나에는 일본 최대 단일교회를 이끌고 있는 오오카와 츠구미치 목사와 일본 목회자들의 연합을 이끌어 온 NRA회장 무라카미 요시노부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성황의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2부 세미나를 인도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주의 종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행복하다”며 “일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조 목사는 요한

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서는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현실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분”에 대해 피력했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최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막교회 시절에 교회는 산 비탈에 위치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면 천막 안으로 비가 흘러 들어왔고 바닥에 매트가 없어 가마니를 깔고 앉아 연명할 때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언제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고 간증했다.

1천여 명의 일본인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DCEM 교회성장세미나'는 일본 목회자들에게 꿈과 용기, 새로운 비전을 심어준 소중한 세미나였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세미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목회자들은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일본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20분 동안 계속된 기도는 중앙공회당을 더욱 뜨겁게 달궜으며 목회자들은 간사이 지역은 물론 일본 전역에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16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예전에 공군 소속 전투기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추락하여 조종사 두 명이 비참하게 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은 구름 속을 비행하던 전투기가 잘 비행을 하지 못하여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비행 착각이란 눈으로 볼 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모든 조종사들은 육안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의 절대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비행기 특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에는 더욱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만 믿어라."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믿을 수 있는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1.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땅에 가서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죄 중에 빠져서 헤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서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고 돌보실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어디로 가야할지 한치 앞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되던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 갑자기 재난을 당하여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낭패에 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큰 위로를 주십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조종사가 계기판을 믿고 따르듯이,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아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음이시오 너희는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이나 불완전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안전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캐논(canon)"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블(bible)이라고 하기도 하고 캐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마실 물도 없고,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모래 폭풍과 위험한 뱀과 전갈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이처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이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갈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거울 삼아 매일매일 살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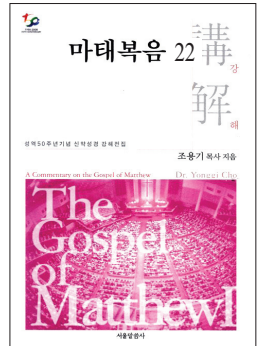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8,29)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히 인간이 범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글자에 점과 획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어 놓은 히브리어 글자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성될지언정 절대로 무시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율법은 그대로 다 유효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멸망 받을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천년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사라지고 용서와 의로움만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단지 율법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됩니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극히 크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용서와 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비취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의 잘못된 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 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과 칭찬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삿포르신학교 2027 신입생모집

모집기간: 7월31일(금)

일본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취득 또는 예정인 자
- § 입학 전까지 JLPT N3레벨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자

원서 제출

삿포르신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sapporobible.college.kr)

등록금 및 학비지원

250만엔/년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식비 일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통한 합격자는 상기 해당하는 비용 전액이 면제 됩니다.

입학문의

Tel +81-11-211-4511(삿포르신학교)
Tel 02-6181-5061(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Tel 02-6181-6572(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삿포르신학교 SAPPORO BIBLE COLLEGE